

추억에 젖은 3040 애니메이션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200만 끌어

日 애니 '더 퍼스트 슬램덩크' 200만명 ↑
역대 2번째 日 애니 200만명 돌파 성공
10명 중 8명 3040 관객 200만명 원동력
역대 최고 흥행 日 애니 가능성도 있어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2월1일 개봉 29일만에 200만 관객을 넘겼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200만 관객을 넘긴 건 2021년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215만명) 이후 처음이다. 2004년 공식 통계 집계 이후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200만 관객을 넘긴 건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과 '더 퍼스트 슬램덩크' 2편이다.

◇역대 흥행 1위 日 애니메이션 되나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누적 200만명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바타:물의 길', 대작 한국영화 '영웅'과 같은 시기에 개봉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개봉 전부터 원작 만화 '슬램덩크'를 기억하는 30~40대 관객이 티켓 파워를 보여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긴 했지만, 200만 관객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이라는 게 영화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업계는 마블의 새 영화 '앤트맨:퀸탐페니

아가 개봉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박스오피스를 뒤흔들 만한 새 영화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초장기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멀티플렉스 업체 관계자는 "현재 추세만 보면 꾸준히 관객을 끌어모으면서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의 215만 관객을 넘기고 250만 관객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역대 국내 최고 흥행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된다.

◇10명 중 8명이 30~40대 관객

개봉 전 예상됐듯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흥행은 원작 만화 '슬램덩크'를 기억하는 30~40대 관객이 이끌었다. CGV에 따르면, 지난 4~29일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본 관객 중 30~40대 관객 비중은 전체 관객의 79%에 달했다. 10명 중 8명이 30~40대 관객이었다는 얘기다. 일반적인 영화의 경우 20~40대 관객이 고르게 분포하고 이중 20대 관객이 전체 관객수의 30% 가량을 차지하

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었다. 이 작품은 이노우에 다케히코 작가가 1990~1996년 '주간 소년 점프' 연재한 '슬램덩크'가 원작. 당시 '슬램덩크'는 전 세계 누적 발행 부수가 1억2000만부를 넘겼고, 국내에서도 1500만부 가까이 판매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현재 30~40대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중고등학생이었던 이들로, 연재가 종료된 이후 20여년 만에 나온 후속작을 보기 위해 기꺼이 극장(행) 선택한 것이다.

◇연출과 각본의 신구 조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관객의 추억에만 기대는 이른바 '추억팔이용' 영화가 아니라 2020년대에 걸맞은 연출과 각본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출면에서 보면, 실제 농구 선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연구한 뒤 이를 영상으로 구현함으로써 경기 장면의 박진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3D 애니메이션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최근 높아질 대로 높아진 관객의 눈을 충분히 만족시킬 정도로 뛰어났다. 분석도 있다.

국내 제작사 관계자는 "'귀멸의 칼날' 때도 그랬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의 연출력은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다"고 했다. 각본 면에서는 만화에서 비중이 적었던 '송태섭'의 전사를 추가함으로써 호기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원작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감성을 채우는 데 성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기존 스토리에 새로운 스토리가 이물감 없이 녹아들어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새로우면서도 익숙한 영화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3회 관람했다는 직장인 최영인(41)씨는 "원작에서 다시 보고 싶었던 장면과 새롭게 봤으면 했던 이야기가 모두 있어 n차 관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번 작품은 이노우에 작가가 직접 연출과 각본을 맡았다.

◇'원작 몰라도 재밌다' 입소문에 역주행까지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이같은 신구(新舊) 조화는 원작을 모르는 관객까지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면서 장기 흥행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역주행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CGV의 통계를 보면 개봉 첫 주자에 10~20대 여성 관객 비중은 5%에 불과했지만, 개봉 3주차가 지나자 15%를 넘겼다. 원작과 관련된 추억이나 향수를 갖고 있지 않은 관객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콘텐츠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영화관 업계 관계자는 "해당 통계를 보면 원작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누가 봐도 재미있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영화였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복귀설 심은하 측 "바이포엠 사기 치지 말라...법적대응"



배우 심은하(51)의 복귀설이 또 해프닝으로 끝났다.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지난해 이어 복귀설을 거론했으나, 심은하 측은 사기라며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은하 매니지먼트를 맡은 클로버컴퍼니 안태호 대표는 1일 뉴스와 통화에서 "바이포엠을 만난 적도, 극본을 받은 적도 없다. 돈을 받은 적은 더더욱 없다. 누구에게 계약금을 줬는지 궁금하다. 실명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며 "심은하씨는 '이 회사를 모른다'면서 너무 황당해 한다. 제발 (바이포엠이) 가짜가 아니라 실체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작년에 심은하씨가 '바이포엠 제작 작품에 출연한다'는 기사가 타지 않았나. 당시 바이포엠 유기준 대표를 만나서 '사기 치지 말라'고 했다. '더는 안 그러겠지' 싶어서 덮었다. 근데 오늘 '계약금을 줬다'는 기사를 보고 '완전 사기꾼 집단이구나' 싶었다. 오전에 심은하-지상욱 부부와 통화했는데, 이제 나서지 않으면 '또 그럴 것 같다'고 하더라. 실명을 거론하고 '전면에 나서는 이유다'."

지나해 이어 복귀설 해프닝, 바이포엠 "계약금 지급" 주장 심은하·지상욱 부부 황당, "만난적 없어...실명 밝혀라" 반박

심은하 측은 복귀 의사가 있지만, 바이포엠과는 논의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심은하씨 복귀 의사는 예전부터 있었다. 계속 극본을 받아서 주고 검토하고 거절하곤 했다. 지금도 극본을 받고 있고, 검토 중인 작품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극본을 언제 만날지 몰라서 복귀설을 공론화하지 않았다. 괜히 '복귀한다'고 했다가 팬들 기대감만 높여주고 무산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조용히 일을 봐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기준 대표가 심은하씨 복귀설 소문을 내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바이포엠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제작사 관계자 등을 만나서 자료를 받고 있다. 어느 정도 자료가 모아지면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바이포엠은 "지나해 심은하와 작품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도 지급했다"며 "올해 복귀작을 확정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대 최고 배우 심은하의 복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심은하 남편인 지상욱(58) 전 국회의원도 한 매체와 통화에서 "심은하는 바이포엠과 접촉한 적 없고, 계약금도 받지 않았다"며 "근거없는 소문을 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은하 복귀설은 지난해 3월에도 한 차례 불거졌다. 당시 바이포엠에서 제작하는 드라

마 출연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은하는 직접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바이포엠이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며 "허위보도 관련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 부디 무분별한 추정 보도는 삼가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청했다.

심은하는 1993년 MBC 2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1993) '마지막 승부'(1994) '청춘의 덫'(1999),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감독 허진호·1998) '미술관 옆 동물원'(감독 이경향·1998) 등에 출연했다. 2000년 영화 '인터뷰'(감독 변혁)를 끝으로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 2005년 지상욱과 결혼해 딸 수빈(17), 하윤(16)을 뒀다.

바이포엠은 영화 '비상선언'(감독 한재림) 역바이럴 의혹을 받은 제작사다. 역바이럴 광고는 특정 제품·콘텐츠에 관한 악평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배급사 쇼박스스는 지난해 9월 말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바이포엠은 이 의혹을 제기한 영화평론가 A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고소한 상태다. 2017년 광고대행업으로 시작, 그해 출시한 '티트리트' 어우터, 이너뷰티 브랜드 '푸디트' 등으로 주목 받았다. 드라마 '연애의 발견'(2014) '또 오해영'(2016) '멜로가 체질'(2019) '나의 아저씨'(2018) 등의 원작인 웹툰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다.

송덕호, 병역비리로 '이로운 사기' 하차



배우 송덕호(30·김정현)가 병역 비리 의혹을 사과했다.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물러나는 등 활동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월 31일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송덕호는 이로운 사기 촬영을 중단했다. 병역 비리 관련 경찰 조사를 받고, 하차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드라마는 사기꾼 '이로운'(천우희)과 변호사 '한무영'(김종욱)이 공조, 절대악에 복수하는 이야기다. 송덕호가

"부당하게 4급" 병역면탈 인정

맡은 역은 분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반기 방송을 앞두고 있지만, 촬영 일정도 빠듯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은 "후임을 모색 중"이라며 "재촬영을 하더라도 방송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송덕호 측은 "지나해 여름계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봤다. A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았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해 처음 목적 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 남은 검찰 조사도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실망을 끼쳐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최근 검찰과 병무청은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을 꾸려 뇌전증 위장 사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송덕호가 병역 브로커 A 지시대로 뇌전증 증상을 연기해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봤다. A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병무공진단서 등을 확보했으며 대가를 지불한 정황도 포착했다. 애초 송덕호는 병역 연기 방법을 문의했지만, A는 "면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빅스' 라비(30·김원식)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브로커가 소 개한 의사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은 혐의다.

퍼플키스, 7개월만에 컴백... '캐빈 피버'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가 7개월 만에 컴백한다.

1일 소속사 알비터블유(RBW)에 따르면, 퍼플키스는 오는 15일 오후 6시 음원사이트에 다섯 번째 미니앨범 '캐빈 피버(Cabin Fever)'를 공개한다.

지난해 7월 발매된 네 번째 미니앨범 '기키랜드(Geekyland)' 이후 처음이다. 같은 해 11월 박지은이 탈퇴한 뒤 6인 체제로 재편해 처음 내는 앨범이기도 하다.

퍼플키스는 그동안 좀비, 괴짜 등 4세대 걸 그룹 내에서도 독특한 콘셉트로 눈길을 끌었다. 호텔 로비와 복도를 배경으로 한 이번 티저 영상도 음산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가 눈길을 끈다. 이번 앨범으로 '퍼키미녀' 세계관을 확장한다는 각오다.



지난 2021년 3월 데뷔한 퍼플키스는 작곡, 작사, 안무창작에도 참여하며 '밸런스돌' 수석을 꿰찼다.

특히, 전작의 타이틀곡 '널디(Nerdy)'는 영국 유명 매거진 데이즈(DAZED)가 '2022년 최고의 K-팝 트랙' 중 한국으로 꼽기도 했다. 뉴스

'스맨파' 무대 뒤 모습은 어떨까?...오는 4일 비하인드 공개

케이팝 음악채널 엠넷(Mnet) '스트릿 댄 파이터'의 여덟 팀이 콘서트 무대 뒤 모습을 전한다. OTT 티빙 측은 1일 "'스맨파' 여덟 팀이 16회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온더스테이지 비하인드(ON THE STAGE BEHIND)'를 오는 4일 선보인다. 크루별 한 편씩 콘텐츠로 준비된다"고 밝혔다.

영상은 여덟 팀의 리더들이 모여 사전 미팅을 한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어 콘서트를 위한 첫 회의와 지난달 16일 공개된 특별미션 '맨온미션(Man On A Mission)' 촬영 현장도 공개된다. 본격적인 콘서트 준비 과정에서는 단체 무

대부터 개별 팀 연습까지 완벽한 무대를 위해 집중하는 댄서로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중 오프닝 스테이지의 디렉팅을 맡은 YGX의 리더 드기와 메가 스테이지 디렉팅을 맡은 저스트필크의 리더 영제이, 엔딩 피날레의 디렉팅을 맡은 프라임즈의 리더 트릭스의 비하인드에는 어떤 피 땀 눈물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